

◆ 돼지생산이력제 농장단위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6일 ‘돼지 생산이력추적체계 도입을 위한 현장 적용 모델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추진될 돼지생산이력시스템은 돈군 또는 농장별 식별번호 부여 방식으로 실시하고, 사업 목적을 소비자 안심에 두고 생산정보 인증 시스템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는 형식의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허덕 박사(농경연 축산연구소)는 “국내외 양돈 부문 생산이력시스템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체계 적용의 한계점이 구분됐다”면서 좀 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허 박사는 생산이력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은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점차적인 전국 확대 시행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우선 올해 내 어떤 식으로 구별할 것인지의 식별과 정보 수집 및 이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솔루션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돼지생산이력시스템 연구결과를 내년 1월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 축사 등 기반시설부담금 안낸다

축사와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이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전남 함평·영광)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22일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행정자치부로 이송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버섯재배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양곡도정업을 신고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농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농업인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농업생산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법률안이 마련되면서 추가적인 농가 피해는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이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제책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 양돈사료량 지난해 물량 넘어서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10월 양돈사료량이 금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생산량이 '05년 같은 기간 물량보다 늘었다는 것이다. 이는 '02년 양돈사료량이 '01년보다 증가한 이래 4년만에 처음이다.

추석 연휴로 줄 것으로 예상됐던 10월 양돈사료량이 46만9천톤으로 9월보다 약간 많았고 전년 10월 46만4천톤에 견줘 1.1%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로써 10월말 양돈사료량은 424만9천톤으로 지난해 동기간 423만7천4백여톤에 비해 0.3% 증가하였다.

이처럼 양돈사료량이 늘어난 것은 돼지 값 강세로 양돈농가들의 입식 열기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 9월 크게 감소했던 돼지고기 수입량 다시 증가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10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1만5천957톤으로 전월 1만4천225톤에 비해 12.2%, 지난해 동월 1만136톤 대비 57.4% 각각 늘었다.

이 가운데 냉장은 941톤으로 전달 844톤에 견줘 11.5%, 일년전 441톤보다 두배 이상(113.4%) 많았다.

또 냉동은 1만5천16톤으로 9월 1만3천381톤, '05년 동월 9천695톤에 비해 각각 12.2%, 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로써 10월말 돼지고기 수입량은 16만5천397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14만8천875톤 대비 11.1%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부위별 수입량을 보면 삼겹살은 7천563톤으로 전월 7천985톤 보다 5.3% 감소하였으며 비중도 47.4%를 기록, 한달전 56.1%에 견줘 8.7%p 낮아졌다.

또 뒷다리와 기타부위도 각각 213톤(1.3%), 447톤(2.8%)으로 전달보다 각각 7.8%, 49% 감소하였다.

반면 목심과 갈비, 앞다리 등이 크게 늘어 각각 3천816톤, 2천22톤, 1천757톤으로 9월에 비해 44.5%, 29.4%, 117.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축산업 중기기준 확대 시급

축산업의 중소기업 해당 규모기준을 늘려 조세특례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있는 축산업의 중소기업 적용 규모는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양돈업의 경우 전·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축산업 중기(中企)기준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다.

현재 종자, 묘목 생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및 또는 매출액 200억원'내 용도 축산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 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 강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3일 '가축전염병 병원체등 관리요령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특별보존 병원체와 일반보존 병원체로 구분, 특별보존 병원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병원체를 해외로 분양 시 사후 관리를 위해 분양 사실을 검역원장에 통보토록 하였다.

한편 특별보존 병원체는 ▲제1종 가축전염병 ▲국내에서 발생사실이 없는 해외가축전염병 관련 병원체 ▲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인수공통전염병 고위험 병원체중 수의과학검역원 가축 질병방제통합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병원체 ▲검역원장이 지정한 병원체이며 일반보존 병원체는 그 외 가축전염병 병원체다.

◆ 농가 돼지열병 항체가 '농장 채혈검사' 기피 심각

양돈농가들이 양돈장에서의 돼지열병 항체가 검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르면 돼지열병 예방접종 상황 파악을 위해 시·도지사는 관내 양돈장과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검사의 경우 항체가가 80% 미만이면 해당 돼지의 출하농장에 대한 확인검사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만 농장 검사는 항체가가 80% 미만이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적발 회수에 따라 50만~500만원이 부과된다.

검사방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달라지면서 농가들이 농장검사를 회피하고 있다. 도축장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해 양돈장 검사를 실시해도 일부 개체에서만 채혈을 하기 때문이다.

◆ 한·EU FTA 체결하면 ... 양돈업 가장 큰 피해

한·EU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부문이 양돈업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세철폐가 되면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등) 수입이 3천8백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축산물은 1천5백억원, 낙농품은 1천3백억원 규모로 생산액이 줄어든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림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을 제외한 EU와 FTA가 체결되면 이같은 규모로 축산물 생산액이 줄어든 것으로 내다보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고민감품목(관세일부인하)으로 분류, 관세철폐를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방침이다.

◆ 갓난 돼지사료 생산 차질 우려

갓난 돼지사료 원료가 되는 유제품의 국제시세가 치솟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용유 원료 가격은 최근 작년 말 대비 유장의 경우 78%, 유당 316%까지 급등한데다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 유제품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올해 여름 주요 수출지역인 미국과 유럽의 폭염으로 원유생산이 크게 준데다 유럽지역의 경우 수출보조금까지 폐지되는 등 국제 시장의 유제품 공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생산량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제 유제품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국내 대용유 및 갓난 돼지사료 제품 등의 사료 가격 인상은 물론 공급도 어려워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축산농가 연령 농업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아

축산농가가 다른 농가들에 비해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은 ‘2005 농림어업총조사’ 최종 집계결과를 통해 영농형태별 농가 경영주 연령을 비

교, 분석한 결과 60세 이하의 비율이 축산 61.4%로 농업 가운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영농형태별 60세 이하 농가 비율은 ▲논벼 37.2% ▲과수 47.4% ▲채소 45.3% ▲특용 53% ▲일반밭작물 34.2%로 축산보다 낮았으나 ▲화훼는 72%로 축산보다 높았다. 한편 축산은 40세 미만(5%)을 비롯해 40~50대(56.5%)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돈육 생산 증가 속 韓·日 줄 전망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돈육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최근 미 농무성은 올해 돼지고기 생산량이 9천 516만7천톤으로 지난해 9천253만7천톤보다 2.8% 증가하며 국가별로는 0.8~6% 이상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금년에 124만톤의 돈육을 생산, 전년 대비 1.6% 감소하며 한국은 101만톤으로 일년전에 견줘 3.8% 적게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중국,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러시아연방 등 주요 돼지고기 생산 국가들은 각각 4.1%, 0.9%, 2%, 0.8%, 6.4% 증가가 예상되었다.

◆ 돼지고기 재고량이 두달 연속 감소, 올

최저치 기록

육류유통수출입협회가 24개 회원사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월 돈육 재고량은 3천233톤으로 전달 3천480톤에 비해 7% 줄어 금년 들어 가장 적었다. 부위별로 보면 인기부위는 늘고 수출부위는 줄었다.

◆ 축산물브랜드전 내년 유료화 된다

내년에도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와 인증제가 병행해서 개최된다. 그러나 축산물브랜드전을 보러 오는 관람객에게는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다.

농림부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및 관계자 회의 등을 토대로 이같이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특히 각 도별로 정육점 콘테스트도 열어 도별로 1개씩 선정, 축산물브랜드전에 전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가 농림부에서 실시한 '이벤트행사 추진실태' 대한 감사에서 가장 잘 된 이벤트 행사로 선정됐었다.

◆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 추진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양돈자조금관리위는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의뢰, 이르면 2008년부터 돼지고기 판매점에 대한 인증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 인증사업은 한우판매점 인증의 경우처럼 양돈협회가 맡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양돈자조금관리위는 생산자가 국내산 돼지고기 판매업소를 직접 인증해주면 소비자의 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농가에게는 자부심과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품종 간 차별성이 없어 인증사업이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 축산물 표시 이렇게 하세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0일 관련 공무원 및 업계 담당자 등 2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축산물의 표시기준 설명회'를 가졌다.

검역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축산물이 가공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와 성분을 표시해야 하며, 국민 소비가 많은 축산물인 조제육류·우유류·발효육류·가공육류·아이스크림류·분유류·소시지류 등은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돼지 부산물 수입량이 크게 늘어

최근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9월말 돼지 부산물 수입량은 9만7천716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만6천803톤에 비해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기별 수입량을 보면 1분기 3만31톤, 2분기 3만4천537톤, 3분기 3만3천14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 13.3%, 17.8%가 많았다.

한편 9월 수입량은 1만172톤으로 전월 1만2천441톤에 견줘 18.2% 감소하였지만 일년전 1만톤에 비해서는 1.7% 가량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캐나다로부터 3천189톤(31.3%) 들어와 가장 많았으며 미국 2천451톤(24%), 덴마크 1천311톤(12.9%), 칠레 898톤(8.8%) 순이었다.

◆ 축산물 수출선 다변화

농림부는 축산물 수출을 촉진하고 제주도산 돼지고기 대일 수출 재개를 위해 콜레라 백신 항체 제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러시아 등 수출선 다변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지난 7일 김달중 차관보 주재로 농식품 수출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 수출 대책 추진안을 논의하였다.

농림부는 러시아, 홍콩, 베트남 등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이달 중 현지 출장

을 통한 시장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간, 콩팥, 지방 등 부산물의 태국, 필리핀 수출분에 대한 물류비도 지원키로 하였다.

한편 돼지고기 부산물의 경우 수출물류비를 신규로 지원함에 따라 필리핀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돼지질병 PED 증가, AD·돼지열병 감소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9월말 PED는 25건 발생, 지난해 동기 20건 보다 5건 많았다. 특히 PED 발생두수의 경우 9천68마리로 '05년 같은 기간 3천71마리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전년 한해 발생두수 3천652마리에 비해서 2.5배 가량 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밖에 돼지 오제스키(AD)는 3분기 말 5건, 2천227마리에서 발병, 지난해 동기 17건, 3천690마리에 견줘 각각 12건, 40%가 감소하였다.

돼지열병은 9월말까지 2건으로 일년전보다 3건 적게 발생했으나 발생 두수는 1천74마리로 '05년 동기 811마리보다 32.4% 증가하였다.

◆ 사료내 비소, 셀레늄 허용기준 재조정 착수

농림부는 셀레늄 등 사료내 유해사료 허용기준 재조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농림부에 따르면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 일환으로 사료내 관리대상 중금속 및 곰팡이 독소의 허용기준 재조정 및 관리대상 종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비소나 셀레늄은 허용기준 재조정을, 곰팡이 독소는 그동안 농가 등에서 제기돼 왔던 보미톡신과 제랄레논 등도 추가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셀레늄에 대해서는 관련연구소는 물론 지난달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용기준 강화를 촉구해 낮춰질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따르면 셀레늄은 프리믹스사료를 제외한 전체 배합사료내에 허용기준이 2ppm이다.

◆ 물태지 출현율 크게 상승

한 때 6%대까지 떨어졌던 물태지 출현율이 크게 상승, 돈육품질에 적신호가 켜졌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가 지난 10월 실시한 돼지냉도체 육질판정 결과 1만1천7백79두 가운데 7.9%인 9백29두가 물태지(PSE육) 판정을 받았다.

전년동월에 비해 0.2%P가 떨어진 것이기는 하

지만 전월과 비교할 때는 무려 1.3%P가 상승한 것이다.

특히 올평균 물태지 출현율 7.5% 보다도 0.4%P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수태지와 거세돈에서 물태지 출현율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수태지와 거세돈은 각 7.4%와 7.1%의 물태지 출현율을 기록, 올 평균치 보다 각각 1.4%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등급 이상 출현율의 하락이 두드러지며 1+등급의 경우 전월에 비해 2.3%P가, 1등급은 1.0%P가 각각 하락한 3.5%와 27%를 기록하였다.

◆ 해양배출 시 이물질 기준 완화

양돈분뇨 해양배출 시 제거해야하는 이물질(머리카락, 동물의 털 등) 가운데 5cm 이하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은 양돈농가들이 길이가 짧은 머리카락과 동물의 털의 제거가 곤란하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현행 해양배출 폐기물 이물질 점검 지침에 길이규정을 추가하고 지난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개정(안)은 10ℓ 당 5개 이상의 이물질(머리카락 및 동물의 털 등)은 무조건 제거해야 되는 현행 지침에 '5cm 이상'만 단속 대상이라는 길이규정을 추가해 점검기준을 다소 완화하였다.

◆ 미국

돼지 값이 두 달 연속 큰 폭 내림세

최근 미 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10월 평균 돼지 값은 96.7달러(100kg 기준)로 전월 101.7달러보다 5% 떨어지면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또 지난해 동기 97.9달러에 비해서도 1.2% 낮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체 값도 10월 평균 147.7달러(100kg기준)로 한달전 157.1달러에 견줘 5.3%, 전년 동월 154.8달러 대비 4.6% 하락하면서 석 달째 내림세를 보였다.

부위별로는 안심 5.2달러, 삼겹살 1.69달러, 갈비 2.6달러로 9월 대비 각각 4.4%, 7.7%, 2% 떨어진 반면 등심은 2.2달러로 전월비 7.4% 올랐다.

한편 돈육 생산량은 늘었다.

3분기말 생산량은 697만톤으로 지난해 동기 688만톤에 비해 1.4% 가량 증가하였다.

또 9월 생산량은 79만톤으로 전달보다 1.7% 가량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과 같았다. 도축두수는 883만두로 전달에 비해 2.9% 적었으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 중국

구제역 또 발생

중국 남서부와 북서부에서 구제역이 발생, 소와

돼지들이 살처분되었다고 중국 농업부가 18일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농업부는 이날 남서부 충칭시의 한 구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소 13마리와 돼지 72마리가 살처분되었고, 간쑤성에서도 같은 이유로 소 181마리가 살처분됐다고 말하였다.

중국에서는 구제역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칭하이성, 8월엔 간쑤성에서 각각 발생 보고가 있었다.

◆ EU

양돈 수익 증가 전망

최근 EU집행위원회는 'EU '06~'13년 농산물 시장 및 농가소득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오는 '13년 EU 25개국의 농업소득이 '05년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EU 15개국에서 돼지고기의 가격이 상승하며 신규 회원국에서도 쇠고기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돼지고기와 가금육의 수익성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 일본

세계 최초 냉동 수정란 이용 새끼돼지 생산 성공

일본이 세계 최초로 냉동 보존한 체외 수정란을



이용, 새끼돼지 생산에 성공했다고 <일본농업신문>이 보도하였다.

<일본농업신문> 최근호에 따르면 아이치현 농업종합시험장에서 지난 10월 31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냉동 보존한 체외 수정란을 사용, 새끼돼지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체외수정으로 수정란을 한번에 대량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냉동보존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증식이 실현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였다.

신문은 또 이번 성공을 계기로 우량 돼지 증식의 실용화가 이뤄져 농가에 공급하는 새끼돼지 가격도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였다.

◆ 세계

돼지사육두수 증가세

미국, 덴마크 등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가의 사육두수를 조사한 결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04년 6천50만마리에서 '05년 6천120만마리로 늘어나다 금년 3월 6천10만마리로 줄었으나 6월 6천90만마리, 9월 6천270만마리로 전년대비 2.5%가 많아졌다.

덴마크(丁)역시 '05년 1천260만마리로 '04년 1천341만마리보다 줄다 금년 들어 7월말 기준 1천340만마리로 작년보다 6.3%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도 작년말 896만마리에서 금년 3월 901만마리, 6월 903만2천마리, 9월 937만마리로 일년전에 비해 4.6%의 증가세를 보였다.

캐나다는 '04년 1천462만마리에서 올해는 1천600만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나 덴마크, 캐나다 등 돼지고기 수출 국가들의 사육두수가 증가한 것은 '02년 영국의 광우병 발생에 이어 '03년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으로 쇠고기보다 돼지고기 소비가 늘면서 돼지 가격이 크게 상승한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미 농무성이 조사한 가격을 각국의 화폐단위를 달러로 환산한 결과 미국의 돼지고기 지육가격은 kg당 '04년 1월 이후 1.33~1.78달러로 강보합세를 형성하였으며 덴마크 역시 1.4~1.7달러대를, 한국은 3.22~4.59달러 사이를 유지하였다.

'04년 이전의 미국의 돼지 지육 가격은 1~1.2달러, 덴마크 1.1~1.3달러, 한국1.8~2.3달러로 조사되었다. 

한국종축개량협회

제9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개최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는 지난 '93년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한우고기를 제공함과 아울러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동시에 수입 산 쇠고기와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순수 한우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1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가 개최된 이래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에서 출하 및 출품축에 대한 등급판정 심사와 경매가 냉장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많은 축산 관계자 및 한우농가가 지켜보는 가운데 흥미롭게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의 등급판정 결과 97개팀 총 194두의 출품축이 출하되어 이중 1++등급 출현율은 64두로 32.99%를 나타냈고, 1+등급 이상은 124두로서 전체의 74.23%를 나타냈다. 특히 고급육이라고 하는 1등급이상 출현율은 92.28%를 나타냈다.

또한 이번 대회 종합성적 결과를 보면 1에서 3위까지는 1.05점의 근소한 점수차로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종합우승은 전북 장수군의 강성선씨가 차지하여 국무총리

상을 받게 되었으며, 최우수상인 2위와 3위는 나란히 강원 평창군 김현식씨 및 평창영월정선축협이 대관령한우가 차지하여 농림부장관상과 한국종축개량협회장상을 받게 되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최고 낙찰가는 경매 둘째날인 9일에 근내지방도 No.9++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평창영월정선축협이 대관령한우가 kg당 25,730원을 받아 이날 출품축 중 최고가에 낙찰되었다.

한국종돈업경영인회

이사회 개최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이희득)는 지난 11월 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종돈장 질병감사 항목 중 브루셀라병 추가에 따른 강제폐기 보상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만약의 브루셀라 발생시 종돈장 역시 소와 같은 강제폐기 보상기준을 준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종돈장은 양성축 외에 동거축에 대한 강제폐기까지 이뤄질 경우 사실상 가동중단이 불가피한 만큼 휴업기간동안의 피해보전은 물론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도 감안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구제역과 돈콜레라 발생축에 대한 비현실적인 강제폐기 보상액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 이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였다.

따라서 종돈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강제폐기 보상 대책을 마련하되 충분한 사전 자원확보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였다.

본회는 또 종돈장의 의무적인 질병검사가 종돈 판매가 아닌 사실상 국가의 질병 모니터링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였다.

다만 지원금의 단계적 감축이라는 정부 방침이 이미 확정된 현실을 감안, 자부담 비율에 대한 상한선 설정을 요구기로 하였다.



관련기관과 수출입 바이어에게 홍보하고, 종돈수출을 확대하여 부가적인 양돈관련 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임원을 선임하는데 있어 참석한 회원 전원이 현 임원진의 연임을 제안하여 이병모 현 회장과 이경록 부회장이 연임되었다.

한국종돈수출협의회

임시총회 개최

본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11월 14일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2006년 종축경쟁력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종돈수출을 위한 말레이시아 현지 세미나 개최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오는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현지를 방문, 한국종돈의 우수성을 현지 양돈인 및

(주)다비육종

제18회 전국 다비퀸 세미나 개최

(주)다비육종(대표 민동수)은 지난 9일 제18회 전국 다비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민동수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장장 7시간에 걸쳐 치러진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150여명의 참석자 대부분이 자리이탈 없이 진지하게 세미나 내용에 경청하는 진지한 세미나가 되었다. 세미나 내용으로는 미래의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돈육브랜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돈육브랜드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건국대



한성일 교수님의 발표와 농장의 수익과 직결되는 PSY 증대를 위한 PSY 27두를 달성한 홍성의 덕산농장 태동진 농장장으로부터 사례발표가 있었다. 또한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PMWS로 농장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관계로 "MSY 향상을 위한 PMWS 대응"(CJ 전주양돈장 정현주 팀장), "MSY를 좌우하는 PMWS 콘트롤 사양-위생관리 포인트"(신베트 양돈컨설팅 신현덕 원장)의 강의가 각각 있었으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공수정을 통해 번식성적을 향상할 수 있다는 JSR Genetics 인공수정을 이용한 번식능력 향상(Steve Cook - AI Production Manager)의 강의와 양돈인으로서의 자긍심



과 프로정신을 심어준 홍수환 전 권투 세계 챔피언으로부터 종사하는 분야에 챔피언이 되자는 "도전하는 삶, 프로정신"에 대한 강의도 함께 있었다.

세미나를 끝으로 제18회 다비퀸 수상식에서는 홍성 홍강농장 최을용 사장이 올해의 다비퀸으로 선정되어 다비퀸S 5두를 부상으로 받았다.

(주)선진한마을

선림GP와 조인 · 준공식

(주)선진한마을(대표 민동기)이 지난 1일 선림GP(대표 김동권)와 조인식을 갖고, 앞으로 종돈 산업 발전을 다짐하였다.

이날 선진한마을은 조인식과 함께 선림GP 준공식을 갖는 자리에서, 친환경 축사 시설에서의 종돈 생산으로 대한민국 양돈 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선림GP는 건축면적 9백50평에서 모돈 5백두 규모를 갖추고, 월간 8백50두, 연간 1만두 출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F1은 연간 3천두 정도 분양할 예정이다. 선림GP는 이달 중순에 순종을 입식, 내년 6월경 분만을 시작해 11월경에 F1으로 처음 출하할 계획이다.

선림GP 김동권 대표이사는 "그동안 선진한마을에서 근무하면서 30년 양돈의 축적된 노하우를 선림GP에 적용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젊은 혈기를 불태워 우수한 종돈을 생산하고 이를 밑바탕이 되어 양돈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농협중앙회 종돈사업소

유전자 공유 및 기술교류 협약



농협중앙회 종돈사업소(소장 서동일)는 지난 10월말 프랑스 최대 육종회사인 Nucleus 육종그룹과 세계 최고 능력의 종돈 유전자 상호 공유와 양국의 양돈 산업과 관련,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사양, 육종, 위생 등의 기술교류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따라서 사업소의 유전적 개량 및 생산성을 평가하고 컨설팅 지원 및, 매년 농협직원을 파견 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관련 농장들을 견학한 김경태 팀장은 프랑스 뉴클리어스 육종그룹은 특히, 산자수가 매우 뛰어나고 포유능력도 우수하여 PSY 30두 목표가 실현 가능한 목표임을 확인했고, 당해 12월에 수입되는 Nucleus종돈을 시점으로 향후 고객 농장에 번식성적 향상을 위한 보다 우수한 종돈 및 기술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주)송강GLC

홈페이지에 초음파 진단기 사용자 포럼란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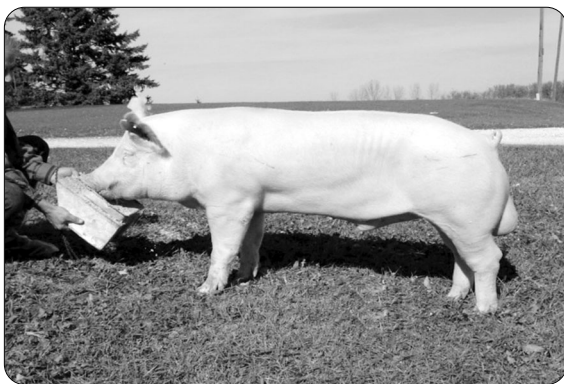
2006년 11월 1일부터 (주)송강GLC(사장 원성오) 홈페이지에 초음파 진단기 사용자 포럼란을 개설하였다.

이는 국내 초음파 진단기 사용자들의 온라인 모임을 활성화하고, 정보교류 및 사용후기들을 주고 받으며 초음파 진단기에 대한 각 개인의 실무와 이론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한다.

또한 “해피콜”란에 접속하여 A/S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A/S에 대한 궁금 사항 및 불만족사항들을 글로 직접 작성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주)중앙진테크

12월 SGI사의 돼지정액 신규 입고 예정



(주)중앙진테크(대표이사 배규익)는 SGI사의 우수 선별 추천된 동결정액을 12월 입고 예정으로 있다고 한다.

이번에는 90kg도달일령 기준 134일, 등지방두께 1.95cm의 성적으로 한국 양돈에 맞는 우수한 포스코어(요크셔 2,418 4score)와 90kg 기준 152일 등지방 1.95cm인 타카기(요크셔 2,407 TAKAGI 271-9) 등 우수한 정액이 입고될 것으로 보여 양돈농가들의 높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10여종의 정액이 입고될 예정에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동사 ☎02-587-1388로 문의하면 된다.

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영예의 대상’

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가 한국경제신문 주최, 열린경영원이 주관하는 ‘2006 사회공헌기업대상’에서 카길코리아와 공동으로 축산업지원 부문 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사회공헌기업대상은 기업의 목적인 이윤극대화,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책임을 다하면서 지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에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공헌 문화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주)건지

사옥 및 공장 확장 이전



(주)건지(대표 객춘옥)는 지난 17일 사옥 및 공장 확장이전 개업식을 하였다.

전라북도 김제시 연정동으로 새롭게 이전한 건지는 국내 양돈, 양계 토탈 기자재 생산업체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수년간의 투자로 축산기자재 전문회사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

새로 이전한 국내에는 사육을 비롯해 대규모 자동화 공장과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관찰 시연할 수 있는 제품 전시장도 갖추고 있어 농가에서 제품구매 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확실히 알고 구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동사의 전 임직원들은 앞으로 좋은 품질, 저렴한 가격, 신속한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여 양축농가와 함께 할 것을 거듭 다짐하기도 하였다.

도드람양돈조합

국내 최초 종돈사육기술 수출

도드람양돈조합(조합장 진길부)은 이달초 중국 흑룡강성 소재 모돈 7백두 규모의 종돈장인 금산봉농장과 경영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인 위탁경영에 돌입하였다.

조합은 이번 협정을 통해 금산봉농장의 경영 및 운영을 책임지되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의 30%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농장 주변 1만3천여평 등 금산봉농장의 각 초지 개발은 물론 신규 축산관련 사업도 전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정체결은 자본 투자없이 순수 기술만을 가지고 해외에서의 경영이 이뤄지는 국내 축산업계 최초의 공식적인 ‘기술수출’ 이라는 데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대규모 초지개발을 통한 경험 축적은 물론 사료원료 확보 차원에서도 시너지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드람양돈조합 정현규 전무(한국양돈연구소장)는 “현지에서 인력을 양성, 국내 농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계열화사업 추진도 검토하는 등 중국진출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흑룡강성 정부 인증 양돈학교와 종돈장을 운영하는 금산봉농장은 하얼빈에서 약 40분거리의 아성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도드람양돈조합은 3년전부터 이곳에 직원을 파견, 지속적으로 컨설팅사업을 전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물등급판정소

우리축산물 홍보관 개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우리축산물 홍보관을 개관하고 소비자들에게 등급판정사업과 축산정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시작한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은 지난 20일 경기도 군포시 소재 등판소 1층에 우리축산물 홍보관을 새롭게 열고 공식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우리축산물 홍보관은 축산물 등급판정사업과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등 정책사업을 상시 홍보, 교육하는 전시관과 교육장을 운영함으로써 등급판정사업과 이력추적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품질등급별 모형이 전시돼 관람객이 직접 품질의 차이를 보고 느낄 수 있고, 계란등급판정 시연장에서 깨지거나 실금이 간 계란을 선별하는 기계와 품질이 좋은 계란과 떨어지는 계란의 모형 등을 선보여 등급판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생산·도축·가공·판매 단계별로 전산시스템을 관람객이 직접 조작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영상물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사)대한양돈협회

이웃사랑 돈육 캠페인 실시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이 올해 역시 추진된다. 협회는 11월부터 12월말까지 모금액 2억원을 목표 캠페인에 돌입키로 결정하였다.

'01년부터 실시한 '이웃사랑...캠페인'은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와 모금액이 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억 2백여만원으로 목표금액을 넘어서기도 했다. 한편 최영열 양돈협회장은 이번 캠페인에 많은 양돈농가와 업계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상팜스코

'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 대상' 3년 연속 수상

대상팜스코(주)는 지난 9월 28일 (주)여성신문사가 주최한 '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 대상'에 3년 연속 선정되었다.

하얏트호텔 리젠시홀에서 개최한 시상식에는 마케

팅실 오명호 실장이 참석해 브랜드육 부문을 수상하였다.

'좋은 기업 대상'은 사회·경제적 공헌도 및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우수기업에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 수상을 계기로 회사는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도드람B&F

'히트' 사료 연일 '히트'

(주)도드람 B&F가 최근 아심차게 출시한 신제품 히트가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고객에게 최고의 수익을 주는 사료라는 의미의 히트(HIT: High Income To customers)는 섭취량·증체량 저하에 의한 주춤 현상 없이 수직성장을 가능케 한다는 점이 벌써부터 농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농가들의 관심을 입증하듯 히트 출시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전국 순회 세미나에 많은 농가들이 참석, 성황리 진행되고 있다.

(주)선진

'프리모' 시리즈 우수성 입증

(주)선진이 자돈사료 신제품 '프리모'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버즈 콘테스트'(Buzz Contest)에 100개 양돈장이 참여, 열기가 고조되

고 있다. 특히 콘테스트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러 농장에서 ‘프리모’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어 콘테스트 후 ‘프리모’의 인기몰이를 예감케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농장은 경남 고성외의 정우농장(대표:서정철). ‘씨프라이즈 세븐데이즈’와 ‘씨프라이즈63’에 참여한 이 농장은 30일령 9.59kg에서 60일령까지 30일 동안 씨프라이즈를 급여, 60일령에 26.28kg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리모’ 자돈사료는 선진이 ‘좋은 사료! 잘 먹는 자돈! 행복한 농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금년 여름 야심차게 출시한 제품으로 사료 섭취 욕구를 높일 수 있는 노하우를 적용, 돼지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사료를 잘 먹을 수 있도록 한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자돈의 장 발달을 위해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특수 가용성 식이섬유 원료를 사용해 자돈 질병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자랑하고 있다.

신제품 소개

(주)동진BLS

디지털 복합 가스측정기의 완결 제품 ‘임팩트 프로(Impact Pro)’ 전격 출시

(주)동진BLS(대표이사 김상중)와 동진물산(주)(대표이사 김영수)는 신제품 “임팩트 프로(Impact Pro)”의 판매를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Impact Pro”는 디지털 복합 가스측정기로, 기존에 공



급한 ‘Finch-Com II’가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이에 보답코자 더욱 기능이 강화된 신제품으로 종전 제품에 비

하여 가격 또한 저렴하게 공급하게 되었다.

특징으로는 기본 구성에 전동펌프의 내장 형태로 가스 측정이 매우 용이하며, 데이터 저장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사용이 편리한 크래들(cradle)로 데이터 로깅 및 충전할 수 있으며, IP67의 방수기능도 겸비하였다. 스탠드형의 견고한 디자인과 내구성, 그리고 경보기능 및 백라이트 기능, 해외 선급 인증 제품으로 원산지는 미국이다.

‘Finch-Com II’와 마찬가지로 측정가스 종류로는 암모니아(NH₃), 산소(O₂), 황화수소(H₂S), 일산화탄소(CO), 메탄(CH₄)등이며, 무엇보다도 가스센서의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복합형 가스측정기와 함께 단일형 제품도 판매 중이다.

“임팩트 프로”에 관심이 있으신 고객은 당사로 문의하시면 제품에 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한다.

* 문의 : 1588-3662(마케팅부) 📞